

공모후기

매년 본사가 주최하던 학술문예현상공모의 몇가지 과정 성 등을 극복하고 대학문예의 질적 도모를 꾀하기위해 기획한 시 문예현상공모는 처음이기는 했으나 나름대로 독자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으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총 639편의 응모작중 당선작 1편과 가작 2편을, 그리고 입선작 4편을 선발하는 이번공모에서는 당선작에는 이선이(국문·4)의 '구포에서'가 가작에는 이성수(국문·4)의 '강진에서'와 박완호(국문·3)의 '구봉리'가 각각 당선되었으며, 입선작은 강형욱(자연대 물리·4)의 '이웃집 이사', 김태호(자대수학·4)의 '아버지의 서울 일기', 황범주(국문·3)의 '채탄산부', 유지호(국문·4)의 '밤'이 각각 당선되었다.

심사는 조태일(동문·시인), 김재홍(한국대교수·문학평론가), 김중희(본교 강사·문학평론가) 나호열(시인)씨 등 4인이 맡았으며 심사위원장은 본사의 주간인 이석우 교수가 맡았다.

과거 학술문예현상공모는 전반적인 작품의 수준도 낮았으며 좀 더 나은 글과 많은 대학문예일꾼의 발굴을 본래 의도한 생각대로 이끌어가지 못했다. 따라서 단 한문이라도 원래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을 획득하기 위해 이번 시문예현상공모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시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국문과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고 본선 심사에 오른 작품들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작품이 많이 올라왔다. 이와 반대로 외국어 대학의 문학전공학생들의 참여도는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도 대학문예의 활성화와 문예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학주보가 되기위해 성실검 노력할것을 약속하며 독자들의 많은 격려와 충고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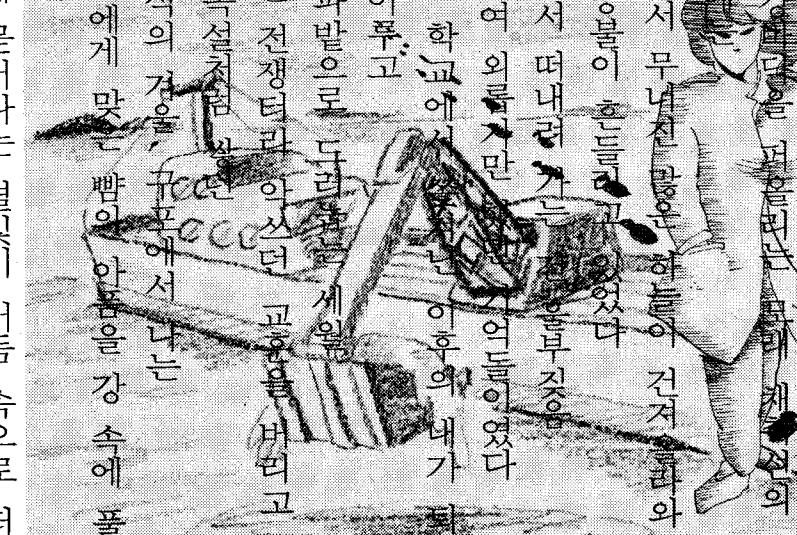
〈문화부〉

당선작

구포에서

이선이

국문·4



제1회 대학주보 詩문예 현상공모 당선작 발표

당선작 '구포에서'의 이선이

새로 이사온 집의 마당가엔
키 큰 나무들이 몇 그루 서 있
다. 바람이 불면 부는 만큼 아
파하면서.
항상 버려내려하는 고통스러움
이 나무에게는 있다. 때로는 일
에 삶의 대부분을 채운 자들은
알 것이다. 제자리를 지키려고
밤새 우는 나무의 가슴을.
학교 정문 앞의 버드나무는 늦은 밤에 홀로 울
고 있었다. 이 곳에서 보낸 내 4년의 세월도 버
드나무 같았다. 쫓겨난 일에 대해 나는 할 말이
없다. 마음은 언제나 먼저 쓰러져 땅굴고, 그러
한 내가 싫었다.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
고 있었다.
나와 함께 사는 우리들 모두에게 어떤 버림목
이 있다면 그것은 늦은 밤 내 작은 창문을 두드려
나를 서로의 가슴아픔이요, 가벼운 미소였다.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고향이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다독여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고마움 잊지
않고 살아야지. 뽑아주시는 분들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나. 겨울 산사에서 주신 그분의 말씀대로
활하게 살아야겠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의 삶을 충실히 지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리라.
얼마있으면 이 집에서 밀려난다. 키 큰 나무가
그리울 것이다.

내 몫의 삶을 충실히 지탱하고자...

경희문학의 중흥을 기대한다

제1회
대 학 주
보 시 문
에 현상공모에 작품을 제출한
원모집은 서울캠퍼스 63명, 수
원캠퍼스 35명으로 모두 98명에
이르렀고 총 편수는 무려 6백38
편에 달했다. 이처럼 많은 수량
은 지금까지의 학내 문예작품
현상모집에서는 그 전례를 찾아
보기 드문 호응도를 보였다.
그런가 하면 작품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범한 수준을 웃도는
우수작이 수심편이어서, 예심에
서부터 다섯번 이상의 정복을
요하는 세심한 심사과정을 거치
기도 했다.
이 가운데 예심을 통과하여
본선에 오른 대상자가 22명, 대
학주보의 주간교수와 시인 2명,
문학평론가 2명 등 포함 5명으
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22명의
시를 대상으로 본선에 들어갔
다. 각자의 평점을 종합하여 이
들 중 반을 추리고, 마지막으로
적할 수 있었다.
결심에 오른 11명의 작품 가
운데 입선에 탈락한 정호충·김
영식·오정석·배정원의 시가 그
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상을 풀어
나가는 힘이나 기본적인 틀의
짜임새에 있어서는 그 나름의 숙
련을 거쳤음을 내비치고 있어서
아쉬운 감을 버릴 수 없었다.
그와같은 결과는 이들의 평소
시 읽기나 습작에의 노력을 집
작해 하는데, 더욱 분발하면 충
분한 가능성을 보일 수 있을 것
으로 믿는다.
물론 4편의 입선작 역시 이
부분의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아니하며 탈락한 4명의 시와 크
게 구별되는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주제의 선명성이나
시적 상상력의 도입 등에서
는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유지호의 '밤'은 밤의 일상적
의미와 여러 각도로 증폭된 파
생적 의미들을 하나의 재미로
연결하면서, 황범주의 '채탄산
부'는 경도에서의 채탄작업을
죽음에 가장 가깝게 서 있는 절
박한 상황으로 인식함으로써,
강형욱의 '이웃집 이사'는 화물
차 한대에 생활상이 전부 실리
는 빈한하고 적막한 삶의 모습
에 기대어서, 그리고 김태호의
'아버지의 서울 일기'는 도시
빈민층인 아버지의 곤고한 여정
을 담론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시대와 사회를 보는 이 예심
인들의 세계관을 압축하여 제시
한다. 유의할만한 사실은 이들
이 시의 행간이나 말미에 묻어
두고 있는 희망적 전망이다. 문
면의 표층에서는 미미하나 분명
한 자기자리를 점하고 있는 이
불사의 존재가, 동시대 젊은 세
대들의 세계인식 방법을 설명하
는 하나의 단초가 될 법하다.
가작으로 뽑힌 '강진에서'는
각 연의 흐름이 유연하고 앞뒤
가 잘 조립된 작품이다. 서술어
의 절박과 흐름의 조절에도 재
치가 있다. 그러나 이 기법적인
능란함은 한편으로는 미리 마련

九 峰 里

가작

강진에서

강진에서 만났다. 다산 정 약 용
방명록 휘갈긴 이름을 보고서야
당신이 이곳에 머물고 있음을 알았다
남해가 보이고
섬이 보였다
내게는 이롭도 가르쳐주지 않은 나무들이
앞 다투어 꽃 피고
아픔을 아픔이라 말하지 않는
당신의 사랑도 둘러 보았다

썰물이 있고
그 다음으로 다가선 밀물
오고 가는 물결 속에서
하얗게 옷 벗는 파도
결국 까르르 웃는 바다
성감대

다산, 한발 내딛으면
육지도 아닌
바다도 아닌
갯벌에서 바시락거리는 게들과
사랑 나누는 오늘
결여 온 유배지 강진에서
당신을 만났다

이 성 수
〈국문·4〉

가작 '강진에서'의 이성수

지난 토요일이 어머니 생신이었다.
우선은 이 작은 선물을 어머니께 드
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
시 문지를 들고 무척이나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내 주와 사람들에게 내
시를 보여줄 때와는 기분이 사뭇 달랐다.
두려웠다고나할까? 부끄러웠다고
나할까? 내 치부를 남에게 보여주거
란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난 왜 이리 답답함
을 느껴야 하는걸까?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살고 싶다.
'성수 넌 안돼 임마!'라고 입질이

박 완 호
〈국문·3〉

가작 '구봉리'의 박완호

지난 주엔 거제도였다 다녀 왔
다. 그녀의 언니는 조금씩 배가
불러오고 있었는데, 군에 있을
때는 진저리가 나던 배가 아는
새인가 이미 그리움의 대상이 되
어 있었다. 지금까지 날 기다리
고 있었다는듯 푸른 가슴을 열어
보이는 바다에게 내 웃음의 반을
보여주었다.
등고길에 학교 근처에서 탐스
럽게 피어오른 장미꽃을 보았다.
그중 가장 예쁘게 생긴 놈을 골
라 먹어보고 싶었지만 요즘의 담
은 왜 그리 높아야만 하는지, 반

쯤 웃어보이고 뒤돌아 왔다.
지금 또 웃을 수 있는 일이 생
겼다.
그래서 반을 더 웃어보이고 한
다. 6월이 다 저물게 되면 나는
얼마나 여름 깊숙히 들어가 있을
까?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온 몸
으로 웃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
다.
제쳐두지 않고 뽑아주시는 분
들께 고마움을 전해드리고 싶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의 의미
로 받아들이고 싶다. 사람팔배에
게도.

당선소감

치밀한 현실인식의 詩적 용해

불필요한 군더더기, 시어의 불안정감 극복해야

산업사회

인간의
산업 사회
의 시작
은 19세
기
에 일어났던 산업혁명 이후로 보고 있
다. 산업사회는 '과학과 기계기술에 크
게 의존하고 있는 사회, 동물의 힘 또는
수력 및 풍력 이외의 에너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회, 고도의 분업화 그리
고 지상의 대부분을 망라한 통상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회형태'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모두 합한
경우 산업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형태와
도 명백하게 구별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특징은 새 기술의
중시, 생산 및 생산성의 급상승, 농업으
로부터 공업으로의 대규모 고용이동, 인
구의 도시집중화, 운송통신수단의 혁명
적 변화, 그리고 대기업의 출현 등과 같
은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산업사회는 여러가지 역사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구조
의
복
합
적
추
진

문화적 환경, 이데올로기, 그리고 자원
의 여건 속에서 제각기 다른 발전의 길
을 걸어 왔다. 그리하여 산업사회에 대
한 정의는 재산소유 형태와는 관계가
없다. 재산소유 형태는 산업사회를 분
류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
이다. 그 대표적인 분류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이다.
산업사회는 그 형태나 체제의 여하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임무와 목적을 가지
고 있다. 그 임무와 목적은 시장메카니
즘을 이용하건 국가계획에 의하건, 사
회가 가지고 있는 생산자원을 효율적으
로 사용하고 그 사회 구성원들의 최대
한의 복지와 장래를 위한 적정성장을
달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산업
사회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실업자와
노인에 대한 대책으로 복지제도를 만들
어 내며, 통화량을 관리하고, 사회를
발전시켜 주고 있는 일반적인 구조를 만들
어 내야한다.

안 재 욱 <경경대 교수·경제학>

나호열·김중희